

속회자료--

2013년 2월 24일 주일 설교 요약

와싱턴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11)
"내 안에서 그를 보라"(See Him Within Me)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3-8

1.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부활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유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십자가들 중 하나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물질 세계를 뛰어 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을 자체를 두고 따지는 것은 아무런 소득 없는 논쟁입니다. 그보다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차원이 존재하느냐?'를 묻는 것이 더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차원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말은 그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이 믿음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 매장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된 예수님에게 일어났을만한 일을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 1)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는데, 제자들이 집단적인 환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다.
- 2)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그분은 기절한 상태였고, 무덤에서 쉬고 난 다음에 기력을 되찾았다.
- 3) 제자들이 몰래 그분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 놓고 부활했다는 믿음을 조작했다.

첫째,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는데, 제자들이 집단적인 환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같은 집단적인 환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 보면 알 수 있듯,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즉시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환상을 보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기절한 상태에 있었고, 무덤에서 쉬고 난 다음에 기력을 되찾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고문 기술자'들이었고 '살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미숙하고 또한 서툴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가정입니다.

셋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어딘가에 숨겨놓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소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나왔다고 보도합니다.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자들의 목숨을 아까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제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지킬만한 기득권도 없었고 얻을 유익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박해와 고난 뿐이었습니다.

3.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결국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무덤이 비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여러 신도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비록 '부활'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경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 실의와 낙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과 신도들이 왜 신속하게 회복되었는지?
- 생전에 부활을 예고할 때는 이해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왜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 아무런 기득권도 없었는데 그들이 왜 목숨을 내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지?
-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부활의 복음을 침묵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지?

이만해도 충분하다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증거 몇 가지를 더 말씀 드리려 합니다.

첫째, 복음서들을 읽어 보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부활의 소식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네 복음서에는 하나같이 여성들이 부활에 대한 첫 목격자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의 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부활 사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처음 제자들과 신도들은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일, 즉 토요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에도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시기에 주일 예배의 전통은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기에 부활하신 날 즉 주간 첫 날을 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안식일 예배보다 주일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투적으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일로 정해진 이유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바로 일요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면, 주일 예배의 전통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예배했다는 사실도 역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사도들과 처음 신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유대교의 유일신관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처음 신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분을 신으로 높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유대교인들의 믿음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으로만 알았던 예수를 신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4.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에게 일어난 심경의 변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한 두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집단적인 패닉 상태와 우울증에 빠졌던 사도들과 신도들이 한 순간에 돌변하여 집단적인 환희에 사로잡혔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심리에 일어난 변화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신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진실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 게바에게--베드로의 아람어 이름
- 열두 제자에게
-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그들 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 있음
- 야고보에게--예수님의 친동생
- 모든 사도들에게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한 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전 15:8)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적어도 5년 이후의 일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고, 바울 사도는 승천하신 후에 만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승천하기 이전의 주님을 만난 것과 승천하신 후의 주님을 만난 것이 똑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본적인 성격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면,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사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리스트는 한 없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세계관이 바뀝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는데, 물질을 넘어서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먹기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생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믿음이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에 그에게는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

부활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그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았어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증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앞에서 저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 받은 사람은 그런 증거 하나 없어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어떤 체험의 순간을 찾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든가 뜨겁거나 차거운 체험을 했다가 질병에서 치유된 경험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찾으면 오도되기 쉽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돌아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나에게 있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변화,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던 죄에서 해방되는 변화, 나의 결심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삶의 변화, 성형수술로도 만들 수 없는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오감으로 느끼지 못했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 없다"고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저의 중심에 와 주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안에 부활의 증거들을 만들어 주시어
저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속회자료> 2013년 2월 24일 주일 설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11)

"내 안에서 그를 보라"(See Him Within Me)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62장(통 151장)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습니다. 부활 신앙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핍니다. (10분)
4.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 2)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중에 당신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3)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부활에 대해 증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 4)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만들어 놓으신 변화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5. 기도
- 1) 부활하신 주님을 참되게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 2) 당신의 삶 속에 부활의 증거가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6. 중보기도
-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170장(통 16장)
 8.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